

“나부터 청렴·소통 솔선... 서구 변화 이끌것”

민선 6기 단체장에 듣는다 임 우 진 광주 서구청장

임우진(61) 신임 광주서구청장은 지역 주민·공무원과 함께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임기 4년 동안 주민 만 바라보고 ‘소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관치 행정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 중심의 자치 행정과 함께 공무원의 자율적인 복무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청사 내 집무실에서 만난 임 청장은 많은 말을 하기 보다는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임기 4년을 관통할 구정 철학에 대해 “깨끗하고 열린 공직사회 구현”, “참여와 자율의 자치 공동체 구현”이라고 밝힌 뒤 자신이 그간 구상해온 복지·경제 등 6개 분야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했다.

다음은 그의 일문일답.

-4년간 서구 구정을 이끌게 됐다. 포부와 소감을.

▲ 세월호 참사 여파로 구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마음이 힘들다. 여기에다 지역 경제도 잔뜩 움츠러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32만 서구민의 살림살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

- 지역 미래 비전에 대해선 현재 밀그림이 그려진 상태인가.

▲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현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아가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라고 생각한다. 미래를 논하기 전에 현재를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전에 관해 구청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청 등 각종 기관이 밀집한 서구는 지리적으로도 광주의 중심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걸맞은 복지·행정·경제·환경·문화·교육 서비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복지 부문은 ‘찾아가는 서비스’, 행정 부문은 ‘참여와 자율성 보장’, 경제 부문은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강화’, 환경 부문은 ‘쾌적한 친환경 녹색 서구 조성’, 문화부문을 ‘문화와 레포츠가 어우러진 서구’, 교육 부문을 ‘사람이 최우선이다, 전부다’라는 등 큰 그림만 그려 둔 상태다. 관계 공무원과 지역 주민 그리고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차분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실행해 나갈 것이다.



임우진 청장 프로필 ▲1953년 장성 출생 ▲전남대 법대 졸업 ▲전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제 2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광주시 행정부시장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전문수원장 역임.

대형 마트도 인해 움츠러들고 있는 양동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접근하겠다. 수십 년 전엔 양동시장이 서구는 물론 광주·전남 유통시장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전통시장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복지 서비스 최전방 기지로 개편하고 구청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

-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은.

▲일자리 창출이 최고 복지, 내지는 최고 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구청부터 장애인 채용을 확대하고 행정 인턴제를 최대한 활용, 일자리를 늘리겠다. 태백통합물류센터도 유지할 계획이다. 실현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씬없이 일자리를 늘리겠다. 사회적 기업 내지는 협동조합을 적극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안정되면 곧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만큼 강조되는 게 환경이다. 퇴근 후 내지는 주말이면 주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서도 인근 풍암 저수지, 운천 저수지 등에서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가꾸고 시설도 보완할 계획이다.

- 취임 전 논란이 된 음주운전 적발 건은 어찌 된 것인가.

▲이 부분은 앞서 취임 전 서구 주민들께 사과 말씀을 올렸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 번 저를 뽑아주신 지역 주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원래 술을 잘 하지 못한다. 담배도 태우지 않는다.

사실 서구청장이 되기 전, 개인 신분으로 선거 준비 과정 내지는 그에 앞서 서구 구석구석을 돌며 많은 사람을 만나며 술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았다. 이제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역 주민들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몸가짐을 조심히 하겠다. 잘할 땐 박수와 성원을, 부족하고 못할 땐 가감 없는 비판과 지적을 보내달라.

/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승원 칼럼

울산 고래문학제의 초청을 받고, 동해바다의 고래들을 보러 가면서 이 글을 쓴다. 고래라고 하면 ‘모비 딕’이 생각난다.

‘모비 딕(Moby dick)’을 번역하면 ‘거대한 놈’인데 미국의 소설가 허먼 멜빌이 쓴 장편소설 제목이다.

나는 40여 년 전 ‘백경(白鯨)’이란 제목의 소설을 읽었다.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증역한 것이었다.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것은 모비 딕이라 불리는 향유고래인데 20톤에서 50톤에 이르는 거대한 흰 고래이다.

포경선 선장들은 향유고래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 그 고래 배 속에 고급 향유덩어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향유는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이므로 향유고래 한 마리를 잡는 것은 그야말로 대박인 것이다.

‘모비 딕’이란 소설은, 에이 함 선장과 선원들이 그 흰 고래를 잡으려다가 모두 죽고 오직 이슈마엘이란

람들 가운데는 엄청난 부정행위를 하고 나서 그것을 신의 뜻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총리로 지명되었다가 사퇴한 그가 그런 유의 사람이다.

인도에서 나고 자란 석가모니는 인간의 참담한 계급주의가 신의 뜻이라는 데에 반기를 든 혁명적인 인간주의자이면서 우주주의자이다.

내 사전에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 같은 나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대기업들을 ‘모비 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집단지위권을 행사하겠다고 나선 에이베의 일본은 ‘모비 딕’으로서의 얼굴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세계 2차 대전을 치른 전범 국가인 데다 36년간 한반도를 폭압지배하면서 작취하고 유린하고 학살했으면서도 사과할 줄 모르는 철면피한 일본의 집단지위권이란 무엇인가.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아닌가. 그들을 옹호하고 부추기는 세계 최강인 미국은 무엇인

‘모비 딕’, 혹은 ‘거대한 놈’ 이야기

선원 한 사람만 살아난다.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에이 함 선장은 향유를 얻기 위하여 향유고래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 소설 속의 서사를 총체적으로 보면 신화적이다. 그 거대한 향유고래를 잡으려다가 다리를 잃고 의족으로 사는 에이함 선장이 그것을 기어 이 잡으려고 하는 광기 어린 행위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약간씩 다르면서도 거의 비슷한 해석들을 하고 있다.

‘모비 딕’이 상징하는 것은 ‘신(神)’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은 신과 인간의 싸움이거나 자연을 극복하려는 싸움을 그린 것이다.

그와 달리,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한 자본을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전체주의적인 파쇼국가, 군국주의적인 국가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그것이 남근을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신의 잘할 땐 박수와 성원을, 부족하고 못할 땐 가감 없는 비판과 지적을 보내달라.

아랍이나 인도의 신을 숭앙하는 사

가. 일본의 힘을 이용하여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려는 것 아닌가.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세계 최고의 군사대국이 되려 하고 있다. 한미 동맹국가인 우리나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나는 또 다른 신화적인 향유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 거대한 향유고래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기침을 하는데, 그때 자랄한 향유 덩어리들이 바다에 퍼진다. 향유가루가 자욱하게 떠다니는 그 바다의 사공은 그야말로 극락세상이 되는 것이다.

경제대국인 일본은 아만적으로 군비를 증강하여 최강의 군사대국이 되어 이웃 나라를 겁박하지만 말고, 그 향유고래처럼 향기로운 기침을 하여 아시아 바다는 물론 세계의 바다 전체를 향기롭고 평화로운 분위기로 만드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이 땅의 대기업들은 해외로 돈을 빼돌려 유명 휴양지에 호화 별장을 마련하고, 프랑스나 미국 등지로 아들딸을 이주시켜 호화로운 삶을 살게 하지 말고, 향유고래처럼 향기로운 남근과 인간의 남근이 혈투를 벌인다고 해석된다.

아랍이나 인도의 신을 숭앙하는 사

<소설가>

구청에 복지 서비스 총괄 ‘컨트롤 타워’ 구축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적극 육성 일자리 창출

서업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시 주민들의 성원을 임기 4년 동안 잊지 않고 구정 추진의 동력으로 삼아 ‘주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민선 6기의 성공에 있어 주민들만큼 중요한 게 있다면 바로 서구청 식구들(공무원)이다. 구청장인 나부터 열린 마음을 갖고 직급에 관계없이 공무원 누구나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으니 언제든지 함께 소통했으면 좋겠다.

-서구 변화를 위한 구청 공무원들과 청장의 뜻이 하나로 모여야 할 것 같은데.

▲공직자의 신뢰 회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지역 주민과 민원인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구청 내부로부터 변화하겠다.

구청장인 내가 아무리 변화를 외치고, 주민 참여를 외쳐도 공직자들의 도움과 성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960명의 공직자가 곧 서구 변화의 주체이자 발전 동력이다. 구청장인 나부터 청렴·진절·소통 등 모든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다. 나 스스로 공직자와 민원인, 지역 주민에게 낮추고 다가서겠다. 자유롭게 대화할 분위기를 만들겠다. 공직자와 구청장

고풍스러운 분위기의 오리전문점

착한 산수정

한분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모시고 있습니다.

약오리
오리구이
오리주물럭

목포시 미향로 21(하당 우미5차 부근) T (061)281-5231

30년 전통의 -

민우액자표구화랑

명화 캔버스 액자, 표구, 각종액자 제작, 그림판매

작가의 작품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허 경 식

목포시 산정동 112-1 (백년로 4거리 장악국 건너편)

T (061)274-1481
H 010-2632-1481